

얼리모닝 글로리



작가 에세이

탁인석
수필가

이 얼마나 될까. 새벽은 내 호흡을 깊게 길게 들이킬 수 있는 더할 수 없이 소중한 시간이다. 어쩔 께막게 잊고 있었던 호흡을 새벽시간에 되찾았다는 더없이 값진 시간이다. 이른바 새벽만이 주는 혜택으로 조깅이라는 것도 해볼 수 있고 뒷걸음질하는 경보도 할 수 있다.

새벽시간에는 움직이는 사람들이 보인다. 새벽의 자유를 얻었다는 것은 하늘로부터의 시간을 깨우쳤다는 것이기도 하다. 새벽시간에는 헛된 생각, 헛된 행동을 할 수가 없다. 오늘 하루에 내가

“어제의 허물을 벗게 해주시고 새것으로 시작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새벽 시간에 촛불을 켜고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자체로 얼마나 아름다운가.

해야 할 일을 점점하고 약속을 잊지 않도록 꼼꼼히 챙기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고요한 새벽시간은 하루를 구상하는 자유로 하여 동일하게 주어진 하루를 낭비하지 않고 활용할 수가 있다.

오전 5시에 일어나면 하루에서 3시간을 더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하루 중 3시간을 맑은 공기를 마시며 내 시간으로 확보하여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건 그런 의미에서 행복한 일이다. 정신적이거나 감정적인 에너지는 건강한 생활을 하고 적절한 동기가 부여됨에 따라 증가한다고 한다. 그 같은 정신력은 나이를 따라 증가해서 80대나 90대 나이에 피크를 이룬다는 사실이 더욱 관심을 끈다. 그래서일까. 이 시간에는 자꾸만 밀쳐둔 독서를 할 수 있어 좋다.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른바 양서라는 것만을 골라 읽을 수도 없다. 때로는 보내 온 책도 읽어야 하고 밀린 원고도 써야 한다. 이럴 때 허둥대지 않고 차분하게 써지는 게 새벽시간의 원고다. 보통의 사람들은 잠이 들어 있는 시간인데 나만이 원고지 칸을 메워가는 재미는 왠지 모를 뿌듯함이 있다.

저녁 시간까지 수행할 일은 얼마든지 널려있다. 모임도 많고 술 마실 일도 많다. 그런데 새벽시간에 대한 원칙이 서면 저녁 시간도 말끔히 정리가 된다. 새벽시간을 이용하는 감미로운 때문에 저녁에는 일찍 잠자리에 든다. 건강상 좋지 않다는 설도 멀리한다. 건강이 상한 이후에야 깨달은 것이지만 새벽에 일어나는 습관은 해졌던 건강이나 밀렸던 독서를 원상회복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라 하겠다.

어디선가 새벽기도 소리가 들린다. 이른바 새벽에 누군가 일어나서 기도를 울리고 있다. 그것도 몇 십 년을 두고 새벽기도를 했을 것이다. “어제의 허물을 벗게 해주시고 새것으로 시작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새벽 시간에 촛불을 켜고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자체로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리고 그 기도 소리를 음악처럼 들을 수 있다면 듣는 사람 또한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기도 소리는 새벽만이 주는 하늘의 뜻일 것도 같다.

새벽은 나에게 하루의 시간에 여유를 주고 정의를 준다. 육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회복까지도 보장받는 새벽시간은 그런 의미에서 하늘의 영광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런 시간이 아니겠는가. 그야말로 ‘얼리모닝 글로리(Early Morning Glory·새벽의 영광)’이다.

제시카법, 단순 ‘분리’에 그치지 않아야



취재수첩

강주비
사회부 기자

jubikang@jnilbo.com

지난해 김근식, 박병화 등 아동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성범죄자들이 잇따라 출소하자 지역사회가 발각 뒤집혔다. 의정부와 화성 등 주민과 정치권 인사들은 법무부에 ‘성범죄자 거주 반대 건의문’을 내고, 일대에 ‘성범죄자 퇴거 촉구’ 플래카드를 내거는 등 거세게 반발했다.

조두순이 출소했던 지난 2020년에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었다. 조씨는 주민들의 항의에도 기존 거주지인 안산에 돌아왔고, 되레 같은 지역에 거주했던 피해자가 집을 쓰는 일이 발생했다. 당시 조씨와 피해자의 집은 불과 1km 거리였다.

흉악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같은 논란이 반복되자 최근 법무부는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을 발표했다. 미국 ‘제시카법’에서 착안한 제도로,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를 학교 등 아동·교육 시설 500m 이내에 살지 못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성범죄자와 아동을 분리함으로써 재범률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한 가지 우려스러운 점은 이 제도가 성범죄자를 ‘대도시로부터 소도시로 옮기는’ 데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제도를 적용하면 광주·전남 성범죄자 263명 가운데 38명이 거주지를 옮겨야 한다. 19세 이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범죄

를 저지른 범죄자로 대상을 넓히면 광주 52%·전남 33%가량이 법에 저촉된다. 또 피해자 연령을 구분하지 않고 거주지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광주 95%·전남 64%가량이 해당한다. 이로 미루어보아 상대적으로 인구 밀집도가 낮고 아동·교육 시설이 적은 전남에 광주나 타 대도시의 성범죄자가 옮겨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상 ‘한국형 제시카법’은 범죄 예방보다는 불안감 해소에 방점이 찍혀있는 것으로 보인다. 당장 일부 시민들의 환심을 살 수는 있어도 성범죄 근절까지 가망이 어렵다는 뜻이다. 제도 시행·사후 관리를 위한 행정력이나 예산도 만만치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성범죄자를 다시 교도소에 넣지 않는 이상 보호 대상과 접촉을 원천 차단할 수 없다는 점에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해소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래 의도와 달리 불안정한 거주지로 인한 재범률 증가 등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까지 대비해야 한다.

성범죄 문제를 ‘성범죄자 분리’로 해결하려 하는 것은 성범죄를 개인의 일탈로 바라보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박다현 광주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장은 “성범죄는 개인 일탈이 아닌 구조적 성차별과 왜곡된 성 인지로 인해 발생한다”고 말했다. 성범죄자가 내 옆집에 사는 걸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이는 없다. 하지만 이를 법으로 제한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과연 ‘성범죄자 분리’가 ‘범죄로부터의 분리’가 될 수 있을까.



사진으로 보는 세상

1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소더비 경매소가 1100년 전의 히브리 성경 ‘코덱스 사순’을 공개하고 있다. 소더비 측은 오는 5월 경매에 나올 세계 최고(最古)의 성경 ‘코덱스 사순’의 예상 낙찰가가 3천~5천만 달러(387억~645억 원)라고 밝혔다. 이 성경은 12장을 제외하고 온전히 보관된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AP/뉴스

지금 내가 있는 건물의 비상구는 안전합니까

독자투고

비상구의 크기는 보통 가로75cm×세로150cm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성인 1명이 빠져 나갈 수 있는 최소한의 크기이다. 또한 비상구의 문은 항상 안에서 밖으로 열리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평소 잘 닫겨서 열었던 문도 패닉상태에 빠지면 평소의 행동을 기억하지 못하고 생존을 위해 문을 밀고 나가려고만 하는 경향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러한 비상구는 실제 화재 현장에서 빛을 발한다. 하지만 비상구 통로에 물품을 쌓아 놓거나, 혹은 잠가두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기껏 화마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비상구를 발견하여 탈출하려는데 문이 잠겨있다면 그 얼마나 통탄할 일인가?

이에 소방은 민간인이 주체가 되어 자율안전관리를 실천하고 건물 관계자의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포상제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는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방화구획용 방화문을 폐쇄·훼손하거나 주변에 장애물을 설치해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소방시설의 수신관 등 전원 차단·고장상태 방지 및 임의로 자동 동작을 불가능하도록 조작하는 행위 등이다.

비상구 상태 확인, 소방시설 위치 파악 등 사소하지만 안전한 습관들이 우리 모두의 안전한 사회를 만든다.

박준영(강진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사)

가뭄 피해 지방상수도 현대화로 극복하자



기고

이창민

한국수자원공사
전남지역협력단장

한다.

노후된 관로는 누수와 수질의 문제를 발생시킨다. 2020년 한해동안만 전남지역에서 생산된 수돗물의 22%에 달하는 약 5500만톤이 국민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사라졌으며 이를 생산원가로 환산하면 손실액은 769억원에 달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신안, 해남, 보성 등 전남 지역 6개 지자체에 누수되는 지점을 찾아 복구하고 노후된 상수도관 교체 등을 통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시행해 2022년 기준 총 4400만톤의 누수되는 물을 절감시켰다.

이 양은 전남 최대 가뭄지역인 완도군이 총 309일을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기후변화로 인해 지금과 같은 가뭄은 앞으로 발생 빈도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철저하면서도 효율적인 물관리가 필요하다. 효율적인 물관리란 물을 잘 보관하고 낭비되는 물을 줄이는 것.

물을 보관하기 위한 댐 건설은 부지 선정과 지역주민 반대 및 막대한 비용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다. 그러므로 심각한 물 부족에 대비하기 위해 낭비되는 물

을 줄여 나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속 가능한 물관리 대책 및 지역 내 안정적인 물관리 방안으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추진이 급선무다.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은 5년 동안 단기간에 시행되는 사업으로 목표달성을 향하여 마무리가 되어감에 따라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현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그간의 노력으로 현대화된 상수도 시설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장기계획을 마련하는 것이다. 현대화사업을 통해 누수되는 물량을 줄여놓아도 지속적인 관리와 투자가 진행되지 않으면 누수는 다시 발생하기 마련이다.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의 성과를 단기가 아닌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면 전문가의 점검이 필수적이다.

낮은 수도요금 현실화율, 어려운 재정 여건, 급수인구의 감소 등 지자체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고려해보면 지방상수도의 효율적 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어려움은 지자체와 K-water 그리고 유관 기관간의 유기적 협조를 통해 극복해나아가야 한다.



‘지역신문발전기금’
호남 유일 18년 연속 선정

인터넷 전남일보
www.jnilbo.com

모바일 전남일보
m.jnilbo.com